

# 직지 찍어낸 금속활자본에 '원더풀' 연발



한미음선원 독일 지원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관에 마련한 '대형 스님 법문' 부스

세계 최대 도서전으로 한국이 주빈국관에 참여한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10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프랑크푸르트시 메세장(박람회장)에서 성대히 진행됐다.

세계 101개국 7200여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총 28만명이 다녀가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 도서전 공식 홈페이지(www.frankfurt-book-fair.com)는 주빈국 한국이 거둔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개막식인 10월 18일 오후 2시 뢰머광장(Roemer Platz)에서는 한미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과 신도 등 1백여명이 독일 전 언론에 팔만대장경과 템플스테이 등 한국 불교문화를 소개했다.

이어 오후 5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메세장(박람회장) 입구에 위치한 콩크레센트 하모니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패트릭 로트 프랑크푸르트 시장, 이해찬 국무총리, 유르겐 보스 도서전 위원장, 노벨문학상 수상후보에 오른 고은 시인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고은 시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손님으로 환영하며 "고은 시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손님으로 환영하는 경지를 문화와 통해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막식도 같은날 오후 6시30분 메세장 포룸(포럼) 2층에 마련된 주빈국관에서 열렸다.

다음날인 19일 주빈국관 "U-book이란 모바일과 책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원하는 책을 다운로드해 볼 수도 있고, 책 내용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전자책 형태로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U-book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단한 시연이 이루어지는 순간, 관람객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그리고는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어떻게 작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관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소개되는 스님들의 목판인쇄 과정을 관람객들이 신기한 관심있게 보고 있다.

## 목판·한지 제작 시연 인기

### U-Book 전송 순간 관람객 탄성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화보집에서 본 내용이 고작이었지만 이번 '직지 전시'를 계기로 한국이 구텐베르크 이전에 금속활자를 발명한 훌륭한 문화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조직위원장인 루트게 보스의 말이다. 그의 이같은 한마디는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화보집에서 본 내용이 고작이었지만 이번 '직지 전시'를 계기로 한국이 구텐베르크 이전에 금속활자를 발명한 훌륭한 문화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조직위원장인 루트게 보스의 말이다. 그의 이같은 한마디는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화보집에서 본 내용이 고작이었지만 이번 '직지 전시'를 계기로 한국이 구텐베르크 이전에 금속활자를 발명한 훌륭한 문화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조직위원장인 루트게 보스의 말이다. 그의 이같은 한마디는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을 마련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10월 22일에는 한국관 포럼에서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주최로 <삼국유사> 독일어 번역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김영자 교수는 라이너 집머만 뮌헨 국립전대 교수와 함께 지난 2년 여간 서로 기밀한 논의를 통해 번역했다. 김교수는 “독일에 한국 불교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독일인들은 즉석에서 책을 구입하기도 했다.

한편 이곳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한미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법문이 영어와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돼 함께 소개됐다. 한미음선원 독일지원장은 도서전 기간동안 미국인 청고 스님의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강좌, 독일 지원장 혜진 스님의 다도 강좌 등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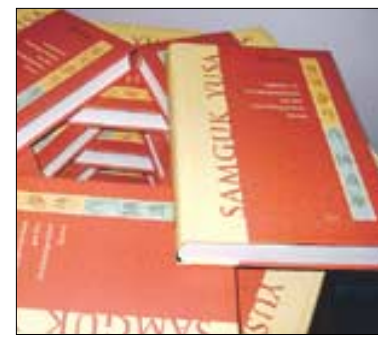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미술관에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초의문화연구원원장 여연 스님의 선다도 시연체험도 볼만했다.

선다 체험을 관람한 요한나 에레미아 (Johanna Eremia) 독일은 “고요하며 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된 선다 그 자체가 선(禪)임을 알게 됐다”며 “작은 동작 하나 하나에서도 깊게 들어가는 내면과의 대화는 한국의 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미술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조선시대 주요 불교회화(사불회맹, 감로탱, 시왕도 등)와 공예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참가한 많은 이들이 이번 도서박람회가 한국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잘 조망했으며, 여기에 전통문화와 불교의 접목도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이것을 이번 도서박람회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글·사진=베틀나 원히-에플레 본지 독일통신원 임영식 본지 독일 명예기자



독일 레베를라에서 출간한 전서본 독일어판 <삼국유사>(사진 위)와 한미음선원 독일 지원장 혜진 스님이 관람객들에게 다도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삼국유사>의 고향,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오른쪽)과 독일어판 <삼국유사> 번역자인 김영자 레겐스부르크 대학 교수가 도서전에서 <삼국유사>를 사는 관람객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 '삼국유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놀라

###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판기념회 연 상인 스님

“<삼국유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해 1천부를 출간했는데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1백여권이 순식간에 판매되는 등 인가와 관심이 컸습니다.”

10월 22일 한국관에서 번역자인 김영자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교수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상인 스님(군위 인각사 주지)은 27일 귀국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도서전 참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출판기념회에서 김영자 교수가 미리 준비해간 <삼국유사> 관련 영상 자료가 소개되면서 독일인들은 물론 행사장에 참가한 외국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불국사를 비롯해 군위 인각사 발굴현장 등 다양한 사찰 영상 자료는 훌륭한 포교 교재 역할을 했지요.”

아직도 행사당시의 감동이 가시지 않은 듯 상인 스님의 목소리는 상기돼 있었다.

“<삼국유사> 독일어 번역을 하면서 번역자인 김영자 교수와 라이너 집머만 교수가 'Temple'의 해석을 놓고 큰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김교수는 'Temple'이란 신이나 종교적 지도자만 모시는 성전이란 의미가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Temple'을 사찰이라고 해석하는데 김교수는 정확히 말하면 수도원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결국 김교수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라이너 집머만 교수가 두 손을 들었지요.” 이렇게 단어 한자의 의미 파악에도 세심하게 신경쓰는 등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간에 정성을 다했다고 상인 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또 행사전날인 21일 마인츠 대학내에 위치한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방문해 2003년 국내에서 발견된 <삼국유사> 영인본을 기증하기도 했다. 이에 박물관장은 내년 중 박물관에 한국관을 신설할 예정인데 그때 이전에 기증받은 영인본과 이번에 출간한 독일어판 <삼국유사>를 중앙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은 일연 스님 탄신 8백주년입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개최한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판 기념회도 단상 기념 행사의 신호탄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큰 호응을 얻어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불교 문화를 해외에 적극 알리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일 기자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

아래와 같이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와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1)세미나일정: 10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9:00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 가능)

(2)교육내용: 전통적 최면과 에릭슨최면, NLP, 전생치료 -빙의치료의 원리와 방법 (이론강의와 실습위주)

(3)교 육 비: 150만원

(4)장 소: 본 연구원 강의장

(5)개인상담안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설기문박사가 직접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6)상담내용: 불안증 및 공포증, 우울증,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각종 알레르기 문제, 비만문제, 합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빙의 문제

● 설기문 박사: 상담심리전문가, 최면 및 전생 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전생기가 참 쉽다”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습니다.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번지 인양건설타워 617호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  
(엔시-뉴코아백화점 맞은편 시티은행 옆 17층건물)  
전화: 011-1762-4598  
인터넷 주소창: 설기문 또는 최면술 www.nipplus.com  
daum 카페: 설기문트랜스넷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사 조청**

- 산사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사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 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사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산사 참뽕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용,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사 청미래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산사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현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위하여 100% 천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산사 조청 월빙 자연당**  
1100g x 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리 등 반찬 만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월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농협 727077-52-056761(원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사 조청원**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름: 완벽 아메론 사용가능

**원두막** 6000 x 3000 x 3200 [mm]  
8000 x 3000 x 3200 [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난방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 x 620 x 350 [mm] 가격: 150,000 할인가: 120,000  
1800 x 1030 x 350 [mm] 가격: 180,000 할인가: 150,000

특수 제작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단하며 얼어지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프랑스산품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www.bungato.com      FAX: (063) 323-3012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국영호  
전화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1 (삼성동) 지구산업빌딩 202호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합**

움직이거나  
터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